

금요 수필

시는게 힘드냐고 물으면



신 영 구
순수필동인 회장

오늘도 해가 저물고 어둠이 세상을 덮는다. 빛과 어둠은 단 한 번도 서로를 마주한 적이 없다. 한쪽이 밀려오면 다른 한 쪽은 소리 없이 자리를 비운다. 세상은 이것을 낮과 밤이라 부른다. 그 분림은 교태와 단절의 반복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긴 밤을 미워 하면서도 사랑했다.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하지만, 내게 밤은 애제 놀이 두었던 마음의 굴이 열리는 시간이다. 낮에는 살아가느라 자신을 돌아 볼 틈조차 없다. 세상이 고요해지는 밤이면 마음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절망과 후회, 이루지 못한 꿈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모든 생각은 결국 하나의 질문 앞에 멈춘다.

‘사는 것은 왜 이토록 힘든가.’

살아오면서 나는 자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 같았다. 낯은 제 길을 찾아 북북히 걸어가는 듯한데, 나만 길을 잃은 채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았다. 사람의 웃음소리는 유난히 밝게 들리는데, 내 안의 울음은 세상 어디에도 닿지 못했다. 돌아보면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내일을 비추던 작은 희망마저 어느새 어둠에 묻혀버린 듯했다. 시간만 쫓지 않고 흘렀지만, 나는 삶이라는 무거운 बो를 가슴에 얹은 채 숨을 붙여주는 날이 더 많았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운다. 그것은 단지 탄생을 알리는 울음만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마주할 부속화와 상실, 이별과 아픔을 견뎌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애감하는 첫 울음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늠름을 피할 수 없고, 병을 비껴갈 수도 없으며, 마침내 죽음 앞에 선다. 삶은 처음부터 유한한 존재에게 허락된 시간이다.

인생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상

처를 끌어안고 걸어가는 긴 순례다. 눈의 무게는 가진 것이 모두 사라졌을 때 비로소 알게 되고, 사람의 길이는 그에게 밝은 상처를 견뎌 내 뒤에야 헤아리게 된다. 실패는 부러져 본 사람만이 그 쓰라림을 알고, 이별은 사랑했던 사람만이 그 빈자리를 한다. 삶의 많은 진실은 인쇄나 읽은 뒤에야 그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타인의 삶을 바라본다. 남의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아픔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처럼 느껴진다. 남의 웃음은 크게 들리지만, 내 눈물은 광바닥에 스며드는 불기처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살아보니 사람마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 서로의 짐을 쉽게 보여주지 않을 뿐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다.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괴롭고 이루고 나면 허무가 찾아온다는 그의 통찰은 매섭다. 나체는 그런 세계를 향해 ‘위험하게 살라. 환산의 비탈에 너의 도시를 세워라’고 말했다. 삶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일이 아니라, 불안과 고통까지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위대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고통 없는 삶은 없다. 다만 같은

상처를 품고도 어떤 사람은 쿨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을 다시 빚어낸다. 파도를 만날 수는 없어도, 배의 키를 잡는 승무원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종교 역시 내 오랜 광황의 길이었다. 진리를 찾아 여러 종교의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인간이 바라는 것은 하나, 구원이었다. 나는 구원을 살아 있는 오늘 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죽어서 얻는 구원만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을 잃어버려 버린다면, 삶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늘만 바라보다가 정작 반 딛고 서야 할 땅을 놓칠 수도 있다.

깊은 밤 산길에서 땀띠라지에 매달린 사람이 밤새 살려 달라고 기도했다. 날이 밝아 아래를 보니 낱밀에는 겨우 한 뼘 남짓한 땅지가 있었다. 다리만 조금 더 내렸다면 이미 땅을 딛고 설 수 있었던 것이다. 나체가 말한 ‘진은 죽었다는 선언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책임까지 신에게 맡기지 말고 자기 발로 삶을 걸어가라는 요청이었을 것이다.

삶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있다. 누구도 내 뒤통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난 뒤에 다시 신랄 끈을 맨다. 희망이 앞에서 손짓하기 때문에 걸

는 것이 아니다. 묵묵히 걷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뒤늦게 따라온다.

누군가 내게 “사는 게 힘드냐”고 묻는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 삶은 힘들다.”

그 한마디를 부성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회는나는 자신이 삶의 준엄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한다. 기괴한 산길은 손을 툴어쉬게 하지만, 그 길을 오른 사람만이 정상의 바타를 만난다. 겨우온 세상을 얻려고 붙은 그 앙을 품고 가장 커져 꽃을 피워 낸다. 생명은 언제나 절강보다 절가나.

어둠이 세상을 깊이 감한다. 나는 밝이 역원하라고 믿지 않는다. 새벽은 광을 믿어내지 않는다. 그저 제 시간을 향해 묵묵히 걸어볼 뿐이다.

오늘도 나는 삶을 견디는 데 머물지 않고 살아내려 한다. 순례길 끝에서 만나게 될 새벽은 누군가가 선포하는 빛이 아니라, 수많은 상처와 눈물을 품고 끝내 걸어진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빛인 것이다. 그 새벽은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헹겨지 않게 품어 안으며,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조용하고 깊게 나를 맞아줄 것이다.

“신영구 수필가는 1989년 월간 ‘문예시조’, 1997년 월간 ‘수필과비평’으로 등단 이후 시·수필·칼럼으로 등단. 저서로는 첫 시집 ‘바람도 꽃피는 계절이 있다’를 비롯해, ‘에세이집 ‘삶에게 묻다’, ‘수필집 ‘그리움처럼 고독이 오는 날’ 외 2권, 칼럼집으로 ‘침묵은 누구의 편인가’ 외 4권이 있다. 현재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과 순수필동인 회장을 맡아 지역 문학 발전에 힘쓰고 있다.

사설

제44회 전미회展

제44회 ‘전미회’展이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시실에서 열렸다. 주관은 전북도립 모악미술관, 주회는 전미회에서 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채화와 유화를 주로 그리는 전북을 대표하는 구상 작가 44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황남현 작가의 기율이 오는 김복이 눈에 띄었다.

특히 황 작가는 오랫동안 전미회 회장을 역임했다. 소성희 작가의 ‘푸른 침묵’도 여움을 상징하는 푸른 색깔이 돋보였다.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순수미술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전미회의 빛을 이어가고 있다. 미술은 가시적인 세계를 통해 불가시적인 영혼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이러한 작업이 즐거운 이유는 그

누구도 참범할 수 없는 고유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이러한 자신만의 세계를 다듬고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속적으로 변화와 실험을 모색하고 독창적인 예술 발전을 위해 창조를 거듭해온 것이다. 변화적 창작의 동기를 서로에게 부여하는 장이다.

전미회는 1980년 창립전부터 한·중 미술 교류전(4회), 불우이웃돕기 전 및 창립15주년 기념전(KBS 전주방송국 후원)(12회), 전북 문화재 테마 기획전(27회), 전미회 30주년 기념 전우회 초대 합동전(30회),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35회), 순창옥천굴미술관 초대 전미회전(36회), 전북도청 기획전시실 전미회전(제38회) 등 44년간 슬한 전시회를 개최한 역사를 갖고 있다.

앤서니 브라운의 ‘마스터 오브 스토리텔링’

앤서니 브라운 전이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마스터 오브 스토리텔링’이란 부제로 전시를 보았다.

앤서니 에드워드 튜더 브라운(Anthony Edward Tudor Browne)은 1940년 영국의 동화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다. 어린 시절 문동을 하거나 혼자 그림을 그리며 자랐다.

예술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다. 지역의 그래픽 스펙을 거쳐 리즈 예술대학(Leads College of Art, Leeds Arts University)에 입학해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다.

그의 가족들은 미술을 공부하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대학을 졸업할 즈음 아버지의 죽음은 그

에게 충격을 주게 된다. 리즈 예술 학교를 졸업한 뒤 3년 동안 맨체스터 왕립병원에서 의학 전문화기로 일했다.

15년간 카드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친구와 회사 동료의 권유를 받고 어린이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게 된다. 1976년 해밀턴 출판사에서 낸 ‘거울속으로: Through the Magic Mirror’가 작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서의 첫 번째 책이다.

이후 1983년 그가 직접 쓰고 그린 ‘고릴라: Gorilla’와 1992년 ‘동물원: zoo’으로 두 차례 영국의 권위 있는 그림책 상인 ‘케이트 그린어웨이 메달’을 받았고, 2000년 그림책 작가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했다.

독자제언

‘방향지시등 켜기’ 하나의 배려가 모두의 안전을 지킨다

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 변경하거나 회전교차로를 진·출입 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사소한 습관일 수 있지만, 뒤따르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방향지시등은 단순한 자동차의 기능

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리는 ‘약속의 신호’이다. 이 작은 신호 하나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위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8조는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범

칙금이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갓길이나 도로 가장자리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출발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예고 없이 차로를 변경해 뒤따르던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추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운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방향지시등은 내 차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주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안전운전의 기본이다. 깜빡이 한번이 뒤차 운전자에게는 준비할 시간을 주고, 보행자에게는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신호가 된다.

교통안전은 거창한 실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작은 습관이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 운전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한다.

이상우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 · 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